

효과적인 프로젝트 설계: 분석 비형식적 추론에서의 오류

추론에서의 오류

미약한 근거와 타당성이 적은 이유는 종종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추론에서의 이러한 오류는 비형식적 추론에서의 오류라 불립니다. 이러한 오류를 아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탄탄한 논증과 더 나은 사고를 하도록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

너무 적은 근거나 예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립할 때, 그들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한 예는 허위로 복지 혜택을 받아낸 여성의 TV 뉴스를 보고 복지정책 수혜자 모두를 험잡꾼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편견은 종종 성급한 일반화의 결과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한 형태는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을 모두를 대표하는 것으로 믿는 스포트라이트 오류입니다.

우연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의견의 근거를 어떤 한 규칙의 예외에 두는 경우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해는 나쁘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부분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연에 기초한 추론은 자기방어로 타살한 경우는 잘못이 아니므로 다른 종류의 상황에서의 살해 역시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원인의 오류

추론에서 이러한 오류는 두 가지 사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후 다음 사건이 벌어졌으므로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동일한 제 3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거나 또는 우연히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미신이 이러한 종류의 추론에서 나옵니다. “내가 행운의 셔츠를 입으면 항상 시험을 잘 본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

유추를 통해 두 가지 비슷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것은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에서의 오류는 타당하지 않은 비교가 이루어 질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 멕시코 혁명 간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세 가지 혁명 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사점에 기초한 판단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 독약풀기

이러한 전략은 어떤 특정 관점에 지나치게 충실하여 그 관점과 대립되는 근거는 무엇이든 깎아내리는 자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고등학생이 수 세기동안 수 백만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극을 즐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셰익스피어의 극을 어리석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순환논리의 오류

순환논법이라 불리는 이러한 오류는 주장 그 자체를 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며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는 “누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인가?”라고 쓰고는 “링컨은 이제까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었으므로 그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므로 최고로 좋은 책입니다.”

문제회피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어떤 이유로 특정 주제를 말하기를 원하는 대중적인 인물들에 의해 종종 사용됩니다. 기밀 또는 안전상의 경우 또는 그 주제가 그저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 등에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그의 행정부 내 부패에 대한 질문에 시공원의 미화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호소

설득력 있는 근거는 신뢰성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근거는 존경받는 권위자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국립암센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다른 한편, 어떤 권위자들은 특정 논증에 부적절할 수 있고 또는 특정 그룹에 의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 종교 관계자들에게만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이 증명된 사실 등 또 다른 종류의 호소를 하며 종종 부모들이 이유로 드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깐”가 있는데, 이는 때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좋은 추론의 예는 아닙니다.

무지에서 나온 논증

이 전략은 어느 한 주장이 오류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비행접시가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깐, 비행접시는 꼭 있어”

밴드웨건 오류

종종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 오류는 인정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깐” 그것을 믿고 또 합니다. 의류광고는 모든 “멋진 아이”들이 이 청바지를 입으니깐 당신도 꼭 이 청바지를 사야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합니다. 이러한 논증에 대한 일반적인 반박으로, “다른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 내린다고 해서, 너도 그럴건가?” 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딜레마 오류

또한 흑백논리로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추론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킵니다. 이 오류의 일반적인 예는 “한국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떠나라”입니다. 이러한 추론을 사용하는 학생은 “제가 좋으면 A를 주고요 제가 싫으면 C를 주세요” 또는 “너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신론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허수아비의 오류

이 시나리오를 마음 속에 그려보십시오. 김태동은 시위원회에 출마하여 상대후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호영씨는 지역 유지를 위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세금인상에 찬성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을 부정확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그려내어 자신의 위상을 실추시킵니다. 이 오류의 이름이 허수아비인 이유는 허수아비가 실제 상대방보다 훨씬 쉽게 불에 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론에서의 오류들은 사적인 대화에서는 물론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논리의 함정을 인식하는 것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